

그  
리  
움  
이  
강  
물  
처  
럼  
밀  
려  
옵  
습  
니  
다



이 상 익

\*이상익님은 민청학련 사건시 한양대에 재학중이었으며, 석방 후에는 기독교운동, 지역운동, 청년운동에 투신하여 1979년 명동 YWCA 위장결혼식 사건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현재는 한국도로공사 감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는 나의 양식의 일부를 친구들에게 주기 위해 남겨두었다. 어제 그놈들과 장난치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쯤 되어 머리를 내밀고 눈을 창살 밖으로 고정시켰다.

서울구치소 쪽으로 건너편 담장 지붕 위에 날아드는 수없이 많은 비둘기들을 보는 것은 나에겐 크나큰 기쁨이며 즐거움이었다. 그놈들은 몹시 다정했다. 저들 또래에도 인간에게서 찾아 볼 수 있는 똑같은 점이 너무 많음을 발견하고 놀랐다.

나의 호기심은 더했다. 한 놈이 계속 다른 놈의 뒤를 따라 다니다가 등 위에 올라타기도 하고, 귀찮은 듯 날아가면 따라서 쫓아가지도 했다. 입을 서로 맞추며 같이 날아다니다가 한 자리에 앉기도 하고, 어떤 놈은 털과 날개를 치켜세우면서 자기 입자에게 접근을 못하도록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꽤 재미있었다. 저들에게는 시간의 무료함이나 그리움이 없었다.

나는 어제 왔던 하얀 것과 잿빛 친구를 기다렸다. 아직 나타나지 않아 안타까웠다. 친구들에게 주려고 남겨놓았던 콩밥은 햇빛을 받아 조금 말라 있었다. 그것을 다시 그늘진 방구석으로 내려 놓고 친구를 기다렸다.

많은 시간이 흘러간 것 같았지만 흰둥이와 잿빛둥이는 날아오지 않았다. 혹시 친구맞이 방법이 잘못되어 그런가 하고 구석에 놓아두었던 콩밥을 끄집어내어 여러 조각으로 만들어 창살 밖으로 휘 던져놓았다. 저 먼곳에서 먹이를 보고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친구를 기다리는 나의 심정도 모르는 지 그래도 그들은 오지

않았다. 나의 마음은 다급해졌다.

그때였다. 팡 하는 소리에 나도 몰래 반사적으로 뒤로 나자 빠졌다. 간수였다. 그는 씩 웃고 있었다. 아마 나의 자빠지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기 때문일 거다. 그러나 그는 언제 웃었냐는 듯 얼굴 표정이 확 바뀌더니 왜 밖을 보느냐면서 앉으라고 다그쳤다.

“밖을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그는 고향을 지르고 사라졌다. 친구가 오지 않는 데다가 간수에게 들키기까지 하여 화도 났고, 그놈의 친구가 뱃기까지 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방 가운데 정좌하였다. 하늘도 보이지 않고 친구들이 날아와 노는 땅도 볼 수 없었다. 혹시 친구들이 지금 나의 앞에 와 있거나 앉을까 싶은 생각에 애가 탔다. 친구들을 보기 위해 온갖 꾀를 다 부려 밖을 보았지만 앉은 상태로 움직여서는 도저히 불가능했다.

뒤를 돌아봤다. 간수가 없었다. 다시 일어서서 발뒤꿈치를 쳐들고 재빨리 간수가 다니는 복도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가 없었다. 즉시 복도 반대편 창살에 달라붙어 모가지를 길게 뽑았다.

그러나 나의 실망은 너무 컸었다. 그놈들은 역시 없었다. 던져놓은 나의 귀중한 양식만이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있었다. 힘이 없었다. 더 이상 창살에 붙어 있을 힘조차 없었다. 흰등이와 잿빛등이가 미웠다. 간수도 미웠다. 몹시 미웠다.

어쩌면 간수에게 들켜서 앉아 있는 사이에 친구들이 왔다가 가버렸는 지도 모른다. 어제도 친구들은 내가 밖을 보고 있을 때

날아왔고, 거의 바로 내 앞까지 오지 않았던가! 간수는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아니 나의 그리움을 빼앗는 악한 같았다. 실제로 간수는 그러했다.

보고 싶은 친구들을 생각하며,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바깥 세상을 향해 창살에 매달려 있을 때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쓴살같이 뛰어와서 문을 사정없이 쿵쿵 두들기며 눈알을 부라렸다. 그 소리는 나의 온 전신에 스며들어 바깥을 향한 그리움을 산산히 부서뜨리고 말았다.

그런 일은 여러 번 있었다. 서울구치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다. 취침 나팔소리의 구슬픈 소리가 끝난 후 어디선가 ‘어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마도 내가 있는 곳에서 꽤 먼곳인 것같았다.

“어머니!”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나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다음 날도 그 소리는 들렸고, 기나긴 여운을 남긴 채 길게 가늘게 끌어져 갔다.

“어머니!”

그 여운의 물결은 나의 가슴을 울렸고 마침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 다음날 그 소리를 놓치지 않고 더 자세히 잡기 위해 취침 나팔소리가 끝나는 즉시 변소문을 열어 제치고 뒤쪽 창살에 매달려 귀를 곤두세웠다.

“어머니이!”

그 소리는 틀림없는 어떤 소년수의 목소리였고, 저쪽 건너편 맨 첫방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보고싶은 나의 어머니!’

불현듯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와 닫는 것이었다. 나는 참을 수가 없었다. 주위를 돌아다 보았다. 간수는 없었다.

“어머니이!”

나는 목이 터져라 어머니를 불렀다. 그런데 저 쪽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어머니!” 하고 또 들려 왔다. 나의 목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다시 내게로 돌아와 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다. 저쪽편 아까 그 소년수의 목소리였다. 그 소년수가 나의 메아리가 되어준 것이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하나가 된 것이다.

“어머니이!”

“어머니이!”

어머니를 향한 코러스가 울려 퍼진 것이다. 온 사방을 진동시킨 이 코러스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다. 하염없이 울었다. 변소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다. 21살의 나는 저 소년수와 별다를 바가 없었다. 이 때였다. 간수는 느닷없이 구둣발로 쇠문을 차면서 위협을 가해왔다.

“이놈의 새끼야, 죽고 싶어 날 받아 놔어? 모가지를 비틀어 버릴까, 이 새끼를!”

간수가 몹시 무서웠다. 실제로 나는 떨고 있었다. 이미 감방 열쇠를 부장이 모두 가져간 것은 다행이었다. 간수의 기세로 봐서 그의 손에 열쇠가 쥐어져 있었다면 나는 박살났을 것이다.

그 다음날부터는 어머니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 간수는 나의 어머니를 빼앗아 가버렸다. 그 소년수에게 큰벌을 내렸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을 것이 틀림없었다.

나에게 엄습해 오는 그리움은 당연히 밖이 보이는 창살 밖으로 나의 마음과 육체를 끌고갈 수밖에 없었다. 변소에만 서면 비록 한정지어져 있긴 하지만 밖이 보였고, 밖을 보게 되면 나의 다정한 벗들과 보고싶은 가족들을 그리며 대화할 수가 있었다. 변소는 냄새가 고약했다. 그러나 그 장소는 이미 나의 세탁소며 세면장이며 부엌이었다. 그곳은 나의 식탁도 되었다. 보고싶은 이가 떠오르면 곧장 밥을 가지고 변소로 들어가서 밖을 보기도 했다.

‘경찰서에서 같이 고생하던 친구들은 아무 제약없이 학교 잘 다니고 있을까?’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무얼 하고 계실까?’

‘나 대신 학과 대표는 누가 맡았을까?’

‘같이 뽕뽕 묶여 군법회의소로 끌려다니시던 교수님들은 어디 계실까?’

교회의 모든 일들. 나의 가장 많은 시간을 바쳤던 교회의 일들.

‘주일학교 반사는 누가 대신 맡았을까?’

‘한참 준비중이던 부활절 칸타타는 누가 대신 지휘를 할까?’

그러나 곧 나는 간수의 방해로 변소에서 쫓겨나오곤 했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나도 모르게 창살을 쥐고 있음을 발견한 것은 흰둥이와 잿빛둥이를 향한 그리움 때문이었다.

어느 잡범의 이야기가 번뜩 떠올랐다. 이 이야기는 서울구치소에서 약 한달 동안 잡범들과 합방돼 있을 때 신기하게 들은 이

야기들이다.

‘그렇지. 왜 진짜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나는 나의 우둔함을 나무라면서 한편으로 기억을 해낸 나의 머리를 칭찬하듯 툭툭 두들겼다.

‘그래, 나도 낚시를 만들어 비둘기를 잡아 내 방에서 키우자.’

낚시에다가 콩을 끼워서 밖에다 놓으면 비둘기가 그것을 쪼아먹게 되는데, 시간을 잘 맞춰 잡아당기면 입에 낚시가 걸려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꽤 신기했었다. 어찌면 고기잡는 것하고 꼭 같았다. 잡은 비둘기는 날개의 털을 모두 빼버리거나 잘라 버리면 날아가지 못하니까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이야기가 떠올랐다. 이 방법은 가능할 수 있는 것이었으나 너무나 끔찍했다. 그것은 쥐를 잡아 같이 생활하는 것이었다.

매일 밥을 놓아두면 그 시간에 오고, 이것을 이용하여 친해지면 쥐를 방에 둘 수 있다 했다. 쥐는 많았다. 큼직큼직한 쥐가 때로는 방에도 나타나서 나를 혼비백산하게 만들 때도 있었다.

난 원래 겁이 많았다. 고등학교 시절, 산에서 바위틈에 딱 버티고 있던 두꺼비를 보고 신발도 팽개친 채 마을다리까지 뛰어온 때도 있었다. 뱀, 지네 등을 보면 심리라도 도망치는 버릇이 있었고, 쥐를 보면 등골이 오싹한게 몹시 무서웠다. 도저히 이 방법은 나에게겐 불가능 그것이었다.

비둘기를 잡는 것은 훌륭한 방법이라 여겼다. 그러나 실망은

너무 빨리 왔다. 아무리 생각해도 낚시를 구할 수 없었다. 줄도 구할 수 없었다. 온 방을 뒤져봤으나 철사동가리 하나 없었다.

한편으론 오히려 잘된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날개를 잘라 버린다면 친구의 몰골이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나의 그리움이 큰 것만큼 친구의 그리움도 클 것이다. 푸른 하늘, 푸른 들이 그리울 것이다.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낚시와 줄이 있었더라도 생각을 고쳐 먹었을 것이다.

귀중한 콩밥을 얼마만큼 떼어서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두고 흰둥이와 잿빛둥이를 기다렸다. 창살에 매달려 모가지를 최대한 내뺏고 눈을 창밖 저쪽 하늘과 이쪽의 마당에다 번달아 가면서 고정시켰다.

그때였다. 저쪽 건너편 맨끝 감방 지붕 위에 여러 마리의 친구가 날아와 앉았다. 거리가 너무 멀었다. 친구들의 눈동자며 구구구 하는 울음 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 안타까웠다.

이쪽으로 날아와라.

이쪽으로 날아와라.

어제의 흰둥이와 잿빛둥이를 찾으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거리가 너무 멀어 허사였다.

흰둥아, 잿빛아, 날아와라, 날아와라.

나는 긴장을 하면서 저쪽편 감방 지붕 위에 눈을 박았다. 자기들끼리 훌쩍 뛰었다가 다시 앉았다가 자리를 옮겼다가 허더니 만 더 먼 저쪽으로 날아가 버렸다. 이미 저들은 나의 시야 밖에 있었다. 가려진 건물이 얄미웠다. 웬지 허전했다. 그러나 세 마리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크나큰 다행이었다.

배짖 날아와라. 날아와라

친구들에게 주려고 남겨놓은 양식을 쳐다보았다. 그것을 손에 꼭 쥐었다. 그리고 다시 친구를 불렀다.

제발 와다오.

제발 와다오.

드디어 세 놈이 퍼드득거리더니 나의 간곡함을 알았다는 듯이 내 쪽을 향해 행동을 같이하여 짹짜게 날아왔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놈들은 나의 감방을 넘어 획 사라져 버렸다. 마치 체트기가 짹짜게 사라지듯이.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 없었다. 몹시도 허전했다. 온몸에 힘이 쑥 빠져들었다. 체트기가 남기고 간 폭음같이 갑자기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마는 공허감에 더욱더 힘이 없어졌다. 창살을 움켜잡았던 왼손엔 자국이 확 파여져 있었고 오른손에 쥐어졌던 콩밥은 어느새 창살 밖으로 땡그르르 굴러 떨어지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감옥내는 요란했다. 감방문 따는 소리, 간수의 고함소리로 온 사방이 떠들썩했다. 저쪽편부터 차례로 따 내려오는 철커덕 철커덕 소리는 먼 이곳까지 들려왔다. 죄수들은 나가서 세면을 하고 물을 떠왔다.

그러나 나는 내보내주지 않았다. 소지(죄수로서 간수를 돕기 위해 일하는 사람)가 대신 물을 떠다 넣어 주었다. 나는 요시찰이라는 것 때문에 독방에 넣어졌으며, 또한 일체의 바깥출입이 금지되어 있음을 알았다.

일반 잡범들은 세수시간이나 운동시간에 감방문 밖으로 나갈 수 있었고, 또 면회가 오면 언제든지 감방 밖을 나갈 수 있었다. 편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었고, 합방의 혜택도 받았다. 그러나 아예 이 모든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세수는 감방 구석에 있는 변소에서만 가능했고, 운동 역시 그러했다.

나는 세면도구를 가지고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푸른 수의로서 얼굴을 닦을 수밖에 없었다. 거친 수의로서 수건을 대신하니 문지를 수 없었고 그저 물기를 문혀낼 뿐이었다. 양치질은 인지와 중지의 두 손가락으로 칫솔을 대신하여 그냥 소금이나 치약도 없이 문지를 뿐이었다.

화장지도 없었다. 몇 겹으로 붙은 벽지를 뜯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벽지를 뜯어낼 때마다 이름모를 벌레들이 도망가거나 방바닥에 떨어지곤 해서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

얼마인지 시간이 흐른 후 소지는 무슨 소리인지 잘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하면서 지나갔다. 구령을 붙이는 듯한 그 소리는 몹시 컸지만 무슨 뜻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이상하기만 하여 간수의 눈을 피해 영창문에 바짝 붙어 바깥 동정을 살펴보았다. 조금 있으니 큰 수레가 저쪽에서 오고 있었다. 그 수레엔 무엇인가가 가득 담겨 있었는데 노란 색깔의 둥글 넓적한 것이었다.

‘아하, 라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왜 이곳에서 라면을 배급할까’ 의아심을 품었다. 그러나 가까이 왔을 때야 비로소 그것이 라면이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콩밥이었다. 사회에서 듣던 콩밥

을 이제 직접 보게 된 것이다. 몹시 신기했다. 그것은 기계로 찍었기 때문에 일정한 규격이 있었고, 보리밥에다 메주콩을 넣었기 때문에 노랗게 보였던 것이었다. 먼 곳에서 보면 틀림없는 끓이기 전의 라면과 같아 보였다.

‘나도 이제 콩밥을 먹는구나.’

이렇게 느껴지자 죄수라는 의미가 실감있게 확 다가오면서 서글픔이 가슴가득 밀려왔다. 울분도 솟구쳤다. 저녁을 굶었기 때문에 배가 고팠다. 밥을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다. 이상하다는 느낌을 가지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아침을 거르고 말았다. 점심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배는 더 고퍼왔다.

소지가 아침과 같은 말을 크게 외치면서 또 지나갔다. ‘무슨 뜻일까? 무엇을 하라는 것일까?’ 아무리 알려고 해도 도저히 그 뜻을 알 수 없었다. 혼자 방에 있으니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다. 간수조차 이 쪽으로 잘 오지 않아서 궁금증은 더 했다. 조금 있으니 또 그 콩밥이 저쪽에서 수레에 담겨져 왔다. 배식시간이 얼마간 흘렀으나 이번에도 내 방을 지나치는 것 같았다. 이상하다 싶어서 마침 간수가 보여 그를 불렀다.

“저, 왜 밥을 안 줍니까?”

간수는 무슨 소리냐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며 대답을 했다.

“아니, 밥을 안주다니?”

이제사 모든 것이 해결되겠구나 싶어 강한 어조로 되받았다.

“어제 밤도 오늘 아침도 못 받았습시다.”

간수는 나의 말이 떨어지자 말자 감방 밑부분을 내려다보았

다. 그리고 나를 다시 쳐다보면서 말했다.

“식구통을 열어야지. 닫혀 있잖아?”

그때서야 나는 소지가 큰 소리로 외쳐대는 그 뜻을 알 수 있었다.

‘밥식기 준비!’, ‘찬식기 준비!’, ‘패통!’ 하면서 지나갔던 소지의 말은 밥을 받으라는 뜻이었다. 내가 그 뜻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 오히려 정상이었다. 알아듣지도 못할 이상스런 억양을 붙여 큰소리로 외치고 지나가는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저들이 설명도 해주지 않으니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감옥내의 언어들이며 생활습관 등은 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알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패통은 용무가 있을 때 막대기를 내려 간수를 부르는 것으로 사용되는 기구였다.

감방 내에서 배급되는 콩밥의 크기는 모두 달랐다. 4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제일 큰 것이 1등가다, 그 다음이 2등가다, 그리고 제일 작은 것이 4등가다였다. 나에게서는 4등가다가 배식되었다.

한창 때인 나는 이 4등가다와 멀건 국물로서 하루의 끼니를 유지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기계로 찍어서 떡밥과 같은 콩밥이었지만 식사시간만 기다려졌다. 국그릇과 밥그릇은 항상 씻은 듯이 깨끗했다.

하루는 기름기가 어려 있는 갈치국물이 들어왔다. 웬 떡인가 싶어 마구 퍼먹었다. 그런데 어찌나 뜨거운지 입술을 테이고 입천정에 물집이 생기고 말았다. 기름이 위에 깔려 있어 김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별 뜨겁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그냥 마셨던 것이

실수였다.

그러나 어찌 이 귀한 것을 포기하랴 싶어 계속 먹었다. 소금을 어찌나 많이 넣었던지 몹시 짜서 혀바늘이 서고 어렸으나 모두 마셔버렸다. 뼈도 죄다 부셔 먹었다. 오랜만에 배가 불러 만족했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조금 있으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드디어는 메스껍기까지 했다. 참아 보려고 일어서서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고 배를 움켜쥐었다 놓았다 별짓을 다 했으나 허탕이었다. 결국 위로 아래로 다 내놓고 말았다. 오랜만에 배를 채우기가 싶더니 고생만 하고 만 꼴이 되었다.

방바닥은 이곳 저곳이 움푹 파여져서 지저분했고, 갈라진 틈 사이로는 각종 오물들과 벌레들이 들어 있었다. 그나마 흠이 없는 바닥엔 몇십년의 연륜을 말해주듯 반질반질했다.

나는 이러한 방바닥에 떨어진 보리알 하나 콩알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모두 주워 먹었다. 다음 밥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며 또한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성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빵비를 내려 달라고 기원하던 때가 생각났고, 빵을 싹껏 먹고 배터져 죽고 싶었던 동료의 말도 떠올랐다.

안이숙 선생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수기의 구절도 떠올랐다. 배가 고파 버선을 뜯어 먹은 사람,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썩은 밥을 먹고 속이 뒤틀려 죽은 사람, 빈 속에 갑자기 너무 많이 먹어서 위가 터져 죽은 사람. 또한 범블랜드 목사님의 감옥 생활 수기에 나오는 구절도 떠올랐다. 먹을 것이 없어 나무 밑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던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배가 더 고파오는 것 같았다. 혹시 나 먹을 것이 없나 하고 온 감방을 두리번거렸다. 이 감방에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너무나 허기가 저서 필요없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문 오른쪽 선반 윗부분 구석에 건빵 봉지가 보였다. 얼른 가서 봉지를 만져보니 건빵이 잡히는 것이 아닌가!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구나 싶어 너무 기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봉지를 부여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건빵은 7개나 남아 있었다. 어느 분이 남겨 놓았는지 백번이나 절을 하고 싶었다. 이 7개의 건빵을 가지고 꼼꼼히 생각했다.

‘한번에 다 먹어벌일까, 아니면 조금씩 먹을까?’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에 한 입에 다 넣어버리고 싶은 충동과 유혹은 대단했다. 그러나 그것은 현명치 못한 것이라 여겼다. 나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

‘하루에 3개, 한끼에 두 개씩, 하나 남으니깐 지금은 3개를 먹어야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릇에다 물을 담고 건빵을 띄웠다. 얼마후 그것은 두 세배쯤 불어났고, 씹히는 것 하나 없이 풀어헤쳐진 것이었으나 너무 맛있게 먹었다.

‘빵, 빵, 빵만 준다면 10년이라도 있겠습니다.’

나에겐 오직 빵, 그것이 전부였다. 10일쯤 지난 어느날이었다. 간수가 나의 번호를 불렀다.

“378번!”

비록 내 이름은 아니었지만 10일만에 들려오는 또다른 나의 이름이라 매우 기뻐다. ‘나에게 무슨 소식이 있는 것인가보대’라고 느끼면서 벌떡 일어나 문 앞으로 나갔다.

“엄지 손가락 앞으로!”

영치물 담당간수는 철창 밖으로 내민 나의 손에 잉크를 묻힌 후 도장을 찍고 물건을 건넸다.

수건과 치약, 칫솔 그리고 빵 10개! 다른 것은 안목에도 없었다. 빵! 이것만이 내 앞에 보이는 전부였다. 빵을 움켜쥐고 감방 구석에 서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울고 울고 한없이 울었다.

‘아, 나는 이제 살았다, 살았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는 번갈아가면서 하나님과 어머님께 감사를 드렸다. 내 가슴에 안겨 있는 빵 봉지에는 내가 쏟은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얼마나 시간을 흘렸을까. 나는 감정을 삭인 후 빵 한 개를 꺼 내놓고 나머지 9개는 문 위쪽 선반 위에다 가지런히 올려 놓았다. 9개의 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보배덩어리였고, 준비하게 놓여진 빵은 나를 기쁘게 하기에 충분했다.

‘아, 나도 이제 부자구나.’

나도 모르게 이렇게 뇌까렸다.

건빵을 먹을 때 얻은 지혜대로 그릇에 물을 담고 빵을 잘게 쪼개서 넣어 젓가락으로 휘휘 저었다. 그리고 그릇 가득 불어난 빵을 물마시듯 단숨에 들이켰다.

눈물젖은 빵. 이것은 나에게 인생을 논할 자격을 부여해 주

었다.

우리의 투쟁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는 악조건 밑에서도 계속되었다. 우리의 투쟁이 성공한다고는 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바깥으로 소식이 나간다는 것은 바랄 수 없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발버둥을 저들이 들어주기는커녕 우습게 볼 것이기 때문이다.

분산 수용되어 있는 우리. 단지 맨몸으로 부닥쳐 깨어지는 이 싸움이 승리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다. 그러나 승패라는 결과에는 신경쓰지 않았다. 단지 우리의 호소, 우리의 울부짖음이 비록 저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정당함을 외칠 뿐이었다.

어쩌면 우리의 이 억울한 호소를 하나님께 알리려는 양탈이었으리라. 우리는 단식으로써 우리의 요구조건을 내걸었다.

1. 유신헌법 철폐하라.
2. 긴급조치 철폐하라.
3. 우리를 무조건 석방하라.

그외에도 우리의 요구조건은 몇가지 더 있었다.

운동을 하지 못하고 햇볕 한번 쬐 수 없는 상황에서 한끼의 밥을 굶는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이었다. 정신적 결단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다.

단식투쟁을 전개한 나는 별 어려움없이 한끼를 넘겼다. 저녁

까지 단식을 하자 모든 분들이 걱정을 했다.

“학생, 몸을 생각해. 이 안에서 굶어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남대문 도깨비시장에서 외제품 장사를 하다가 들어온 50대 아저씨의 말이었다. 다른 분들도 한톨의 콩알도 꼭꼭 씹어먹어야 할 판에 굶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비슷한 위로의 말씀을 했다. 감방내의 다른 분들이 밥을 먹고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올 땐 미칠 것 같았다.

다음날 아침도 여전히 단식이었다. 같이 계신 분들의 걱정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한 두끼 정도 하다가 그만둘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나의 태도에 놀랐다. 그 와중에도 어느 분인가가 남겨진 나의 밥을 먹겠다고 했다. 그대로 버려서 못 먹느니 주린 배라도 채우겠다는 것이었다.

“안돼요.”

절도범으로 여러번 들어온 키 큰 아저씨가 소리쳤다. 그는 전과 6범이었다.

“이 밥은 먹을 수가 없어. 모아서 담당님께 보여줘야 돼.”

“맞아, 이것은 아무도 먹을 수가 없어, 죄받아.”

누군가가 거들었다. 나는 밥을 먹으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말했다.

“배가 고프시겠지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나는 고개를 돌리지 못한 채 눈을 감은 상태에서 말했다. 점심 때가 되니 괜히 단식을 한 것이 아닐까 후회가 되기도 했다. 배가 너무 고파 견디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돌멩이도 녹일 수 있

다는 혈기왕성한 20대 초반의 나에게는 단식투쟁이 가혹한 것이 아닐 수 없었다. 밥먹는 소리가 들릴 때나, 종종 방문을 들여다 보고, “먹는게 좋을 걸. 그런다고 뽀족한 수가 있나”라고 하면서 힐끗힐끗 쳐다보는 간수나 계장의 말을 들을 때는 당장 밥을 먹고 싶었다. 그러나 이 유혹도 나를 이기지 못했다. 기도의 힘은 가장 큰 무기였다.

‘주여, 같이 해 주소서. 주여, 같이 해 주소서.’

견디기 어려울 때마다 나는 기도를 했다. 아저씨들은 바람이 가장 잘 통하는 곳에 자리를 마련해 놓고 나를 그곳으로 눕혔다. 물이라도 먹으라면서 입에 갖다 대기도 하고, 멸건 국물을 권하기도 했다. 푸른 수의를 벗어서 부채질도 해주고 했다. 이 분들로부터 받은 따뜻한 정은 오래오래 간직되었다.

어느날 아침엔 학생이 일곱끼나 굶었다고 하면서 주렁주렁 매달은 밥 덩어리를 순시하는 과장에게 내보였다. 그것은 마치 시골 지붕에 새끼줄로 묶어서 매달아 놓은 메주덩어리와 흡사했다. 단식 삼일째 되던 날은 그야말로 미칠 지경이었다.

‘아, 나는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마치 죽음의 사신이 내려오는 것 같았다. 속이 쓰리고 허하다 못해 완전 메말라 버터 온 내장이 없어져버린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

주위에서의 잡다한 말들이 그냥 뽕뽕거릴 뿐이었다. 간수의 발길이 잦아졌고 뭔가를 자주 보고하는 것 같았다. 강제급식시키킬겠다는 말을 여러번 했는데, 이제는 진짜 실행에 옮길 태도였다.

나흘째 되던 날은 같은 방에 있는 분들이 어쩔 줄을 몰라 했

다. 이분들은 도저히 나의 신념을 꺾을 수 없다고 느낀 것 같았다. 자기들끼리 나를 두고 의논을 하였고, “이러다간 학생이 죽게 된다.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 학생을 살리기 위해서 강제급식을 담당님께 요구하자”는 등 나의 단식문제를 놓고 여덟 분이 모두 매달렸다.

이러는 사이 단식 5일째 아침을 맞았다. 3일이 지난 후 간수가 서너 차례 와서 “모두 단식을 마쳤는데 혼자서 무슨 짓이냐”고 했다. 그러다 우리쪽 누군가로부터 연락이 있을 거라고 믿었기에 간수의 말은 나의 단식을 포기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나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평소 나에게 바깥 소식을 간혹 전해주면서 호감을 보여줬던 간수가 교대시간에 와서 동료들이 어제 단식투쟁을 마쳤다고 하였다. 조금 있으니 의무과 직원이 청진기와 강제급식 기구를 가지고 왔다. 강제급식을 당하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렵다. 식도로 고무호스를 밀어넣고 타이어에 바람넣듯 음식을 쏟아 붓기 때문이다.

나는 비료소 동료들의 단식투쟁기간이 끝난 것을 알았기에 그냥 누워있는 상태로 그들에게 말했다.

“저녁까지 하고 마치겠으니 몸을 만지지 마시오.”

나는 이성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저들은 막무가내였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죽고 말 겁니다. 분명히 약속합니다. 오늘 저녁까지.”

이렇게 하여 닷새의 단식을 마쳤다.

그 뒤 나는 안양교도소로 이감을 갔고, 거기에서도 서울구치소에서 내걸었던 같은 요구조건과 그외 1, 2심 군법재판 무효, 마치 우리가 빨갱이인 양 몰아붙이는 마스크 조작중지 등을 요구하면서 3일간의 단식투쟁을 했었다.

이 때는 독방에 혼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의 무료함까지 겹쳐서 더더욱 견디기 어려웠었다.

그후 마산교도소로 이감 온 후 동료 8명과 더불어 앞의 교도소에서의와 같은 내용과 분리수감에 따른 부당한 대우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투쟁을 계속하였다.

서울구치소에서의 단식투쟁중 잇을 수 없는 분이 있다. 지금은 이 땅에 없는 분, 그는 경북대 여정남 형이다. 단식 두끼째 되던 때 형은 내방 저쪽편을 지나갔다. 아마, 단식투쟁관계로 교도소 당국에서 어디론가 데리고 가는 것같았다.

처음 보는 형의 모습은 키가 무척 컸고, 머리는 수건으로 동여맨 채 자신에 찬 모습을 하고 있었다. 양손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가슴에는 노란삼각형의 요시찰 표시가 붙어 있었다. 형을 보는 순간 나는 몹시 놀랐다. 왜냐하면 삼각형은 사형수의 가슴에 붙이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감옥 속에서의 요시찰 표시는 세가지 색깔, 즉 빨강, 노랑, 파랑색이었다. 반공범은 빨강색, 긴급조치는 노란색, 살인수는 파랑색의 사각형인데, 사형수에 한해서는 모두 공통으로 삼각형의 표시가 가슴에 수번과 함께 붙여지게 되고, 양손에는 수갑을 찬 채 감옥생활을 하게 된다. 가장 주의깊게 취급되는 것이 이 세가지 색깔의 죄수였고, 이 사람들에게는 항상 '요시찰'이라는 명칭

이 붙어다녔다. 일반범들은 이런 표시가 없었다.

형은 나를 보자 수갑이 채워진 양손을 머리 위로 치켜들면서 파이팅을 힘차게 외쳤다. 번쩍이는 눈빛이며, 굳게 다문 입술, 움켜진 주먹, 유난히 큰 키, 이러한 형의 모습은 그의 사형집행과 아울러 영원히 잊을 수 없다.

마산으로 이감온지도 2개월이 지나고 있었다. 토치카 모양의 공기통과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창살로 만들어진 빨간 벽돌집, 그 사이에 하얀 벽돌로 감방들을 분리시켜 놓고 있었다. 당장 총구라도 불쑥 튀어나올 듯한 공기통은 무시무시했다. 세로 약 5m, 가로 8m의 직사각형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40㎡의 공간이 나에게 주어진 시야의 전부였다.

나의 방은 몹시 컸다.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의 것보다 몇 배는 되었다. 잠범들은 20~30명, 때로는 40명까지 수감되는 방이었다.

나의 그리움은 다른 곳에서보다 더 컸다. 방 오른쪽으로 도로가 있고, 그 도로 건너편 저쪽에는 산이 있었고, 이 산 맞은편에도 산이 있었다. 그 산의 움푹 들어간 부분엔 밤나무들이 탐스럽게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볼 수 없었다. 교교시절을 이곳에서 보냈었기 때문에 알 수 있을 따름이었다.

이 교도소는 양쪽 산의 복판에 놓여져 있었다. 그 동안 바뀐 것은 고속도로가 생긴 것뿐이었다. 오른쪽 산과 교도소 중간쯤에 남해안 고속도로가 뚫려 위치하고 있었다. 안양서 이감을 때 부산을 거쳐 이 고속도로로 왔다. 이 고속도로를 달려보기는 그때

가 처음이었고 멋진 드라이브(?)는 호송차 속에서 온몸이 바늘로  
뚫이고 손에는 수갑이 차여있는 상태로써 되어졌었다. 개통의 퍼  
레이드는 참으로 아이러니칼한 것이었다.

마을 하나하나, 거리, 행정구역, 심지어는 어디쯤에는 고개가  
있고, 길이 좁고 넓고, 도로가 움푹 파인 곳이 어디고 자잘한 것  
들을 상세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이곳 지리에 밝았다. 고교시절의  
추억은 이 도로와 마을들에 듬뿍 담겨져 있었다.

그 당시 나는 함안 칠원이란 곳에서 통학을 했다. 수업을 마  
치고 귀가하는 통학버스와 창을 통해서 나의 친구가 리어카에 짐  
을 가득 싣고 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혼자였다. 도로는 비포장의  
시골길이었고 경사진 고개도 여러 군데나 있는 좋지 않은 도로였  
다. 가파른 고개를 오를 때면 버스가 몇번이고 기아를 바꾸는 것  
을 앞자리에서 많이 보았었다.

위험한 곳도 많았다. 내리막길이 제일 위험한 것 같았다. 브  
레이크도 없는 리어카에 가속이 붙는다면 틀림없이 어딘가를 처  
박고 친구는 쓰러지고 말 것같았다. 목적지까지는 50리나 되었다.

비포장에 경사진 곳이 많이 이 먼거리를 리어카에 짐을 싣고  
친구는 혼자서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산을 막 출발하여 시내  
를 조금 벗어난 곳에서 나는 그 친구를 보았다.

버스에는 나외에 평소 같이 통학을 하는 친구들이 서너명 있  
었는데, 같이 내려 친구를 돕자고 했으나 별 생각이 없는 것같았  
다. 그 다음 마을에 와서야 친구들을 뒤로 두고 나 혼자 버스에서  
내렸다.

단숨에 친구에게로 뛰어갔다. 거기에도 고개는 하나 있었고

꽤 먼 거리였다. 친구를 본 즉시 내리지 못한 것이 죄스럽게 여겨졌다. 나는 그 죄책감 때문에 한번도 쉬지 않고 단숨에 친구에게로 갔다. 친구는 이마의 땀을 닦고 있다가 뛰어오고 있는 나를 쳐다보고는 몹시 놀라는 것이었다. 창피스럽다는 모습이 그의 얼굴에 역력했다. 그 친구는 나의 국민학교 동기였다. 그러나 친구를 알게 된 것은 졸업 후 다른 친구들의 소개로 서였다. 그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또 국민학교 밖에 다니지 못했다.

그와 나는 이 일이 있는 후 스스럼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다. 다만 아껴 신고 다니던 군화 뒷굽이 많이 닳아버린 것이 아까웠을 뿐 왜 그리 즐겁고 기뻐는지 모른다.

우리집은 그후 칠원에서 함안 가야로 이사를 했다. 밤만 되면 기적소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신경을 곤두세우게 된 것도 나의 집에 대한 그리움이 컸기 때문이었다.

기적소리는 긴 여운을 남겼다. 어린 송아지의 울음같이 길게 울렸다. 부모형제가 있는 곳을 향하는 기적소리는 언제나 그리움에 푹빠지게 함으로써 잠을 빼앗아 버리곤 했다. 마음이 울적해지는 것은 당연했다. 오늘도 그 기적소리는 들려왔다.

여덟시 반 정도 됐을까. 기적의 여운이 길게 향하는 것을 봐서 마산쪽으로 달리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열시 정도와 새벽에 또 기적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진주쪽이었다. 내 부모형제가 계신 곳은 그 중간쯤에 있었다.

장영달형이 안경을 맞추러 밖을 다녀온 사실을 상기했다. 참 좋은 기회가 어찌면 내게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 전부터 사물들이 조금씩 불분명하게 보이는 것을 느꼈고, 오랫동안 책을 보고 있으면 눈이 시렸던 것은 사실이다. 횡한 불빛, 영양섭취 불량, 운동부족 등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

바깥을 볼 수 있는 기회, 이것은 40㎡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던 나로서는 유혹의 대상으로 충분했다. 끝없는 하늘, 양편의 산, 그 밑의 기차길, 버스길, 시내의 모습들, 사람들…….

마음은 마냥 뛰고 있었다. 시력이 나빠진 게 큰 기쁨이었다. 간수에게 신청을 했다. 며칠 후 드디어 허락이 떨어졌다. 보안과에 가서 간단한 절차를 마치고 기다렸다. 나의 양손엔 수갑이 채워졌고, 온몸과 양쪽 팔목엔 오랏줄로 묶여졌다. 이런 일은 붙잡힌 이후 재판과정에서 여러번 있어서 당황하지는 않았다.

운전수와 간수, 부장, 그리고 나 네 사람이었다. 바깥 공기는 너무 산뜻했고 양쪽 편이 산은 위엄이 있었다. 차는 달렸다. 흡족하게 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 차는 철문으로 바깥을 거의 차단했고, 뒷문의 조그마한 틈으로 언뜻언뜻 볼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서울에서의 완전히 밀폐되었던 호송차들에 비한다면 훨씬 괜찮았다.

시내로 들어섰다. 남해안 고속도로가 생겨 시내 입구가 조금 바뀌어져 있었다. 기차길은 그대로였다. 많은 건물들, 많은 사람들. 한 장면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조그맣게 뚫린 창문을 주시했다. 차가 너무 흔들릴 때면 그것조차 놓쳐버렸다. 시내 깊숙이 차가 들어섰다. 조금 있으면 내려야 할 것 같았다. 양손에 걸쳐진 수갑과 수의, 퐁퐁 묶은 오랏줄들이 눈에 거슬렸다.

‘호송차에서 내려서부터는 웃옷도 벗기고, 수갑과 오랏줄도 풀어주어 마치 죄수가 아닌 것처럼 데리고 갔다’는 영달형의 말을 기억해냈다.

이 말을 듣지 않았다면 감히 밖으로 나오려고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부장은 거의 다 왔다고 했다. 그러나 별다른 재량을 보일 것 같지 않아 조금 당황이 되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부장을 향하여 수갑과 오랏줄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부장은 안된다는 것이었다. 부장은 무슨 소리하느냐는 듯 엄격하게 내뱉었다. 얼굴이 확 달아오르면서 몸돌 바를 물랐다. 이런 상태로 시내를……. 도저히 나의 모습을 상상하기조차 싫었다. 나는 또 요구했다. 그것은 거의 애걸에 가까웠다.

“부장님, 나는 확심범입니다.”

“안돼!”

부장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또 애걸했다.

“영달형은 그렇게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내가 데려오지 않았어.”

“제발 그렇게 해 주세요.부장님. 저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아요. 저는 학생이에요”

“안돼, 그렇게 할 수 없어.”

상관을 돕기라도 하듯이 이번에는 간수가 말했다. 부장의 오른쪽 허리에 차여진 권총이 눈에 확 들어왔다. 나의 애걸은 수포로 돌아 가고 말았다. 그리움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다. 어느새 차는 세워졌다. 나는 내가 현재 와 있는 위치를 잘 알 수 있었다.

“아니, 이곳은 안경점이 없지 않습니까?”

부장은 인파와 교통으로 인해 안경점까지 걸어가야 한다고 했다. 설상가상이었다.

“안경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 밑이야, 시민극장 맞은편에 있어.”

그 쪽은 마산에서도 꽤 번화가로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었다. 이곳에서 거기까지는 못되어도 50m는 되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안경 신청을 괜히 했다싶어 후회가 쏟아졌다. 시들어져 버린 나의 모습은 상상하기도 싫었다. 누더기같은 푸른 수의, 그 위에 붙여진 수번 306번, 시커먼 고무신, 수갑, 오랏줄, 오른쪽에 부장, 왼쪽에 간수…….

그놈의 오랏줄은 푸른 수의와 색도 차이가 큰 흰색이어서 유난히 눈에 띄었다. 친구들이 가장 많은 이곳, 교회의 사람들, 나를 아는 사람은 이곳에 많이 있었다. 금방이라도 달려와 ‘아니, 상의이 너가…’ 못 손짓들이 와르르 닥쳐올 것 같았다.

나의 머리는 땅을 향해 있었다. 안경점까지 거리는 너무나 멀기만 했다. 끝이 없는 것 같았다.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들은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걸음을 멈춰섰다.

모교의 후배들도 눈에 들어왔다. 그래, 좋다. 고개를 들라. 나는 죄인이 아니다. 죄가 있다면 이 나라 꼬락서니를 걱정한 것 뿐이다. 책임적 존재로서 이렇게 살고자 한 나는 절대 죄인일 수 없다.

어느 누구라도 나를 보란 듯이 고개를 꼴꼴이 치켜들었다.

도도한 발걸음으로 나의 행동을 흐트러뜨리지 않게 했다.

어느새 나의 몸은 안경점으로 들어와 있었다. 시민극장 맞은편의 영남안경점이었다. 윈도우에 모여든 시민들의 휘둥그레한 눈동자는 호기심에 차 있었다.

저 살인자, 강도, 도둑놈...

윈도우의 수많은 눈들이 나를 미치게 했으나, 조금도 내 모습을 흐트리지 않고 도도히 앉아 있었다. 인파들로 인해 안경점의 문이 흔들렸다. 부장과 간수는 그들을 보내기 위해 밖으로 나갔고, 나를 보이지 않는 구석으로 앉혔다.

5~6세 되는 조그만 꼬마 두 명이 점포 안에 있었다. 예뻐고 귀여웠다. 그들은 나를 보더니만 “나쁜 사람, 나쁜 사람” 하면서 가지고 놀던 총으로 나를 빵빵 하면서 쏘아댔다. 억지로 웃었지만 가슴은 미어졌다.

주인은 호통을 치면서 다른데로 보내버렸다. 꼬마들은 주인의 아들인 것같았다. 시력은 0.6으로 나왔다. 사실은 더 좋았다. 그러나 눈도 나쁘지 않으면서 왜 나왔느냐는 문책이 두려워 0.8 정도는 됐으나 0.6에서 멈췄다. 1.5였던 것에 비한다면 나빠진 것은 틀림없었다. 종업원이며 주인은 말 한마디 없었다. 몹시 냉랭했다. 흉칙한 죄수가 있기 때문에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테이블 저쪽에 신문이 놓여져 있었다. 간수의 시선을 피해 조심스럽게 신문을 들여다 봤으나 부장은 눈치를 채고 신문을 멀찍이 옮겨놓고 말았다. 안경대를 녹이고 알을 갈고 있는 시간은 제법 걸렸다.

작업을 마친 주인이 안경을 써 보라고 하면서 거울을 가져다

주었다. 생전 처음 써보는 안경이었다. 우스웠다. 그리고 서러웠다. 종업원이 조금 큰 태를 고치기 위해 안경을 가져갔다.

“출소가 언제요?”

주인은 내 앞에서 안경알을 끼워 모양새를 맞추면서 그냥 있기가 어색한지 사무적인 어투로 질문을 해왔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직 형을 받지 않았나요?”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장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학생이지요. 긴급조치 있지 않습니까?”

“아이구.”

부장의 말을 듣자마자 주인은 나의 어깨를 덥석 잡았다.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주인의 이 한마디에 나는 목구멍으로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격에 사로잡혀 하마트면 울 뻔했다. 고마웠다. 일에만 열중이던 종업원들도 모두 나를 응시했다.

“신문에서 봤어요. 마산에도 8명인가 왔다더니만…….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곧 나오게 될 겁니다. 국무총리께서…….”

그는 말을 하다말고 부장을 쳐다봤다.

“부장님이 계셔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만, 걱정마세요.”

딱딱한 안경점 분위기가 갑자기 좋아진 것 같았다. 그 동안 안경은 다 만들어져 부장과 간수는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주인은 재빨리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다방에다 차를 주문했

다. 그는 선뜻 나에게 차를 대접하겠다고 했다.

부장과 간수는 왠지 어색한 표정이었으나 별다른 제재는 하지 않았다. 조금후 아가씨가 차를 가져왔다. 나의 모습을 본 아가씨는 몸이 굳어 있었고, 아주 조심스럽게 커피를 따라서 내려놓았다. 부장은 오랏줄은 놔둔 채 수갑만 겨우 풀어주었다.

“쫓쫓, 죄없는 학생들을…….”

주인의 독백을 뒤로 들은 채 차를 향해 걸었다. 주인과 종업원들은 바깥까지 나와서 “걱정 말아요, 걱정 말아요” 하면서 손을 들어 보였다. 고마운 분들이었다.

그날 저녁 잠자리에 누워 저쪽 산밑의 기찻길에 귀를 기울였다. 기적 소리는 아직 울리지 않는다. 다만 안경점 윈도우의 수많은 눈들이 여기저기서 나를 응시해 왔다.

도둑놈, 강도, 살인자…….

그리움의 맺가는 너무나 잔인했다.

